

새시장 가꾸는 개척의 기수

金 演 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선물거래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생소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그것은 선물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자원파동을 겪고나서 부터라고 할수 있다.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하나로 해외선물시장을 이용하여야겠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74년말부터이며 1975년부터는 소수이긴 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선물시장을 통하여 선물거래에 참여하

기 시작하였다.

1974년말 선물거래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기업들의 해외선물거래실적을 살펴보면 1975년부터 '80년까지는 연평균 물량으로 따져 8,500톤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는 10만톤을 넘어섰고 '85년에는 20만톤을 상회함으로써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985년도의 거래금액은 총 1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原資材 수입총액 170억달러와 비교해 보면 0.6%에 불과한 보잘 것없는 수준으로서 당시 우리 기업들의 海外先物市場 이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先物去來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시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등이 참여한 공동세미나를 비롯해 제도 발전을 위한 용역의뢰, 각계 전문가와의 간담회등 활발한 의사수렴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내 선물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물시장의 정보제공과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선물거래제도를 주도적으로 연구할 선물거래전담 민간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6년 7월에 경제기획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5호)에 의거 사단법인 「선물거래협의회」가 설립된지 4주년을 맞고 있다.



세계 최대의 금융선물거래소(CME)의 Leo Melamed 회장 초청 세미나광경 (90. 4. 26)

선물거래 기반 구축

지난 7월 10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선물거래협의회는 그동안 玄在賢회장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 기반이 구축되어가고 있다.

선물거래협의회는 그동안 경제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에 선물거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해외선물시장을 활용해서 원자재의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체의 수가 32개 회사가 되었고, 선물거래를 활용하고자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28개 회사에 달하며, '89년도에는 국내업체의 선물거래실적이 美貨로 15억달러, 원貨로는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학계와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선물거래를 연구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92년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해 先進金融技法중의 하나인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연구와 경험축적을 위해 국내의 연수를 활발히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선물거래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색되는 시기에 각 기업들이 선물거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조를 같이하고 우리나라 선물거래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선물거래협의회는 활동은 무척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업

“
국내 선물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물시장의 정보제공과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선물거래제도를 주도적으로 연구해온 선물거래협의회가 설립 4주년을 맞아 다부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

들이 아직은 선물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타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미흡과 전문인력부족이 심각하며 선물거래 관련제도도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점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우리나라가 선물시장에 효율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물시장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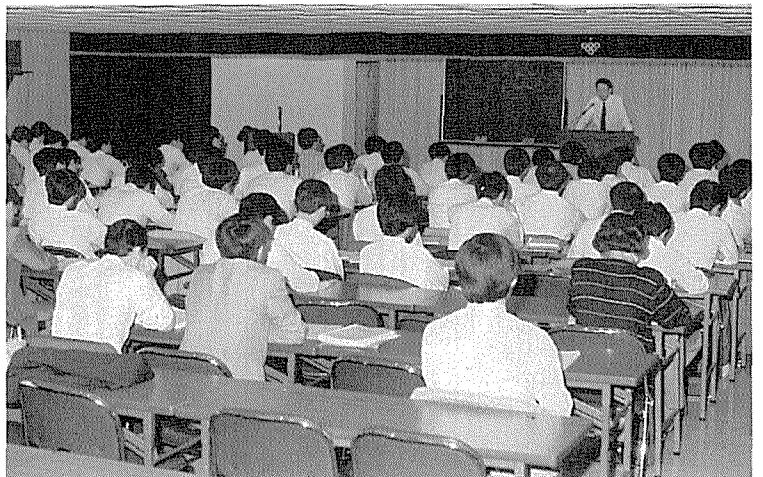
둘째,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셋째, 선물거래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선물거래제도의 발전과 나아가 국내선물거래소의 설립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현재 국내금융기관을 비롯한 각 기업체들의 선물거래에 대한 관심고조로 선물거래협의회는 기능과 업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회원제도

先物去來協會의 조직은 크게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낸 바 있는 선물거래정기교육과정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협의회의 실질적인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중심적 기능을 맡고 있으며, 月刊「先物經濟」誌 발간, 선물거래 교육실시와

홍보활동, 자료분석 및 제공, 기타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正會員, 국제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사수는 설립당시인 '86년에 33개 업체에서 현재는 정유5사를 포함하여 98개 업체로 크게 증대했으며 종래의 원자재 實需要業體 중심에서 다수의 금융, 증권업체의 회원가입으로 회원의 업종도 다양해져 회원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해졌다. 한편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및 세계최대의 청산회사인 국제상품청산회사(International Commodity Clearing House)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국내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에

제반 협조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유수의 先物去來仲介會社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先物去來協議會의 국제적 면모를 입증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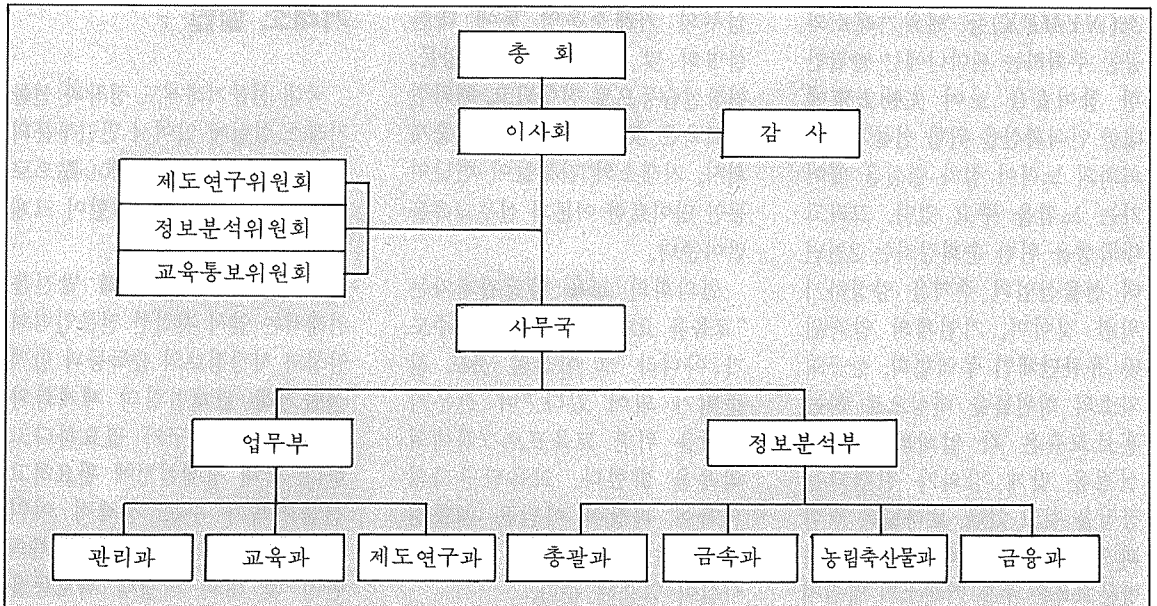
협의회에서는 선물거래의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專門人力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教育, 弘報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선물거래의 순과정정을 강의하는 정기교육은 대표적인 협의회의 教育프로그램으로 관련 업계에 자리를 굳혔고, 해외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진행되는 특별강좌는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으며,

〈표-1〉業種別 會員現況

業 種	會員數	構成比
貿易	17	17.7%
金融(銀行, 短資)	20	20.8%
金融(證券)	15	14.6%
農 產 物	10	10.4%
非 鐵 金 屬	10	10.4%
精 油	5	5.2%
先 物 仲 介	9	9.4%
去來所, 清算所	3	3.1%
言 論 機 關	3	2.1%
其 他	6	6.3%
計	98	100.0%

선물거래협의회 조직표





세계 최대의 원유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거래광경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 해외거래소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는 놀랄만한 참여율을 보여 先物去來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선물거래협회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 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순회강좌는 2천년대 선물산업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체의 임직원 및 유관단체인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은 각 업체의 특성과 실정을 맞게 강의가 진행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다 넓은 경험과 현장감각을 익히기 위한 해외 방문교육은 주요 거래소의 밀집지

역인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 및 중개회사의 임원에 의해 선물거래 실무와 거래소운영 등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거래소방문, 현장실습등으로 진행되고, 해외현지교육은 美國의 대학교수, 중개회사, 거래소의 간부들이 한달여 동안 타이트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맡아준다.

협회의 교육 담당관계자는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면 제주도 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곳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의욕을 밝혔다. 교육담당자의 의욕이 과장이 아님은 배출된 교육인원이 8천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선물거래제도 연구와 국내 거래소 설립

국내 선물거래제도 정착과 선물거래소 설립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求心點으로 <先物去來協議會>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선물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정보의 습득등과 함께 선물거래 관계법령의 체계화와 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내 경제실정에 필요하고 선물거래가 주는 경제적 이익 즉, 기업 경영의 안정, 국내물가의 안정 및 대외 경쟁력 확보등을

추구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생산적 유동자금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資源의 效果의 利用을 가능케 하는 선물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어느 한 관계자는 '싱가폴이 싱가포르國際金融去來所(SIMEX)를 1985년에 개설한

이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싱가포르의 지위가 급격히 부상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선물거래협의회는 현재 이에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정부기관과 민간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선물거래의 실질적인 시장구성체인 주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선물거래협의회가 선물

거래제도 정착과 선물거래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성장의 필연적 요구인 선물거래의 발전을 위해 각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부의 구체적 지원과 함께 선물거래협의회는 다부진 활동이 기대된다.



□ 땅이름에 얽힌 이야기 / 강원도 墨湖·太白 □

‘검은 노다지’ 캐낸 검은호수

강원도 墨湖는 지난 79년 삼척의 북평읍과 합쳐져 東海市가 됐다. 그래서 묵호라면 알아도 동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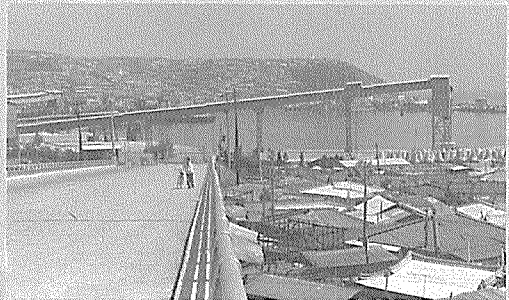
墨湖는 수심이 깊고 물이 푸르다못해 먹물을 풀어놓은 듯 해 ‘검은 호수’라는 뜻으로 墨湖라 불렸다. 그래서인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후 정부의 主炭從油 에너지 정책으로 태백권에서 채굴한 石炭을 해상 수송이 쉬운 묵호항에 쌓으면서부터 말 그대로 ‘검은 호수’가 됐다.

근래에는 지하 깊숙한 막장까지 파내야 하는 비싼 채탄가와 인화된 기름 값으로 석탄수요가 줄어 검은 도시의 탈을 벗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소련, 캐나다產 수입 석탄이 들어와 쌓여 역시 묵호는 墨湖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 묵호항에는 수입 석탄을 下貨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컨베이어, 하이브리지가 밀림을 이루고 있다.

묵호에서 태백선 철도를 타고 내려가면 太白山에 다다르게 된다. 太白은 우리 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太白山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우리 민족을 ‘한밤괴’ 즉 白頭山에서부터 그 뿌리가 비롯됐다 하여 白(밝)을 뜻하는 ‘배달 민족’ 혹은 ‘백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두산을 정점으로 태백산, 소백산 등 국토의 근간이 되는 산자락들이 하나같이 白字가 들어가 있다.

太白山도 우리 말로 ‘한밤더피’로 大光明을 뜻한다.이



강원도 東海市의 墨湖港.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와 하이브리지가 설치돼 있고 바닷물은 ‘검은 호수’를 연상케 한다.

렇게 희디 흰 태백시 앞을 흐르는 내가 黔川이고 동네 이름은 黔洞이다.

25년 전만 해도 이 금천엔 맑은 물이 흐르고 열목어가 서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일대에서 검은 노다지인 무연탄이 年間 65만 톤이 생산되면서 ‘검은 내’라는 予言的인 땅 이름과 일치하게 됐다.

강원도의 태백산 인근엔 탄광촌이 들어서면서 하천엔 검은 물이 흐르고, 높고 낮은 산등성이와 골짜기엔 석탄더미가 쌓여 있어, ‘한밤더피’ 太白山은 민족의 宗山으로서 품에 안은 ‘검은 노다지’를 풀어내 地名 그대로 大光明을 주고 있다.